

# 장애인동계체전 감동 투혼 펼쳐진다

### 7일~10일까지 7개 종목 실시 전북선수단 60명 출전 9위 목표

전북 장애인선수들이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서울·경기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체전은 스노보드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빙상,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등 7개 종목으로 실시된다. 총 17개 시·도 선수 400명이 출전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20명, 감독·코치 11명, 임원 20명 등 모두 6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종목별로는 컬링 7명, 빙상 4명, 알파인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 6명, 아이스슬레지하키 11명, 바이애슬론 1명 등이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빙상종목(청각)에서 김윤희 선수가 5년 연속 2관왕을 예상하며 종합순위 9위(4000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동계종목은 경제적 부담과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장애인에게는 운동환경과 동상까지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동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송하진)는 1일 전라북도체육회관에서 2017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사업결과 및 임원변동사항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확정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송하진)는 1일 전라북도체육회관에서 2017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사업결과 및 임원변동사항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확정했다.

박종덕기자

## 핸드볼 코리아 3일 개막 부산시설공단 우승 관심

부산발 강재원표 물풍이 일어날까. 2017 SK핸드볼 코리아리가 오는 3일 개막해 5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자부 부산시설공단에 쏠리는 관심이 대단하다.

부산시설공단은 2011년 출범한 실업리그 체제에서 단 한 차례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없는 약체다. 지난해에는 8개 구단 중 6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다르다. 공공의 적이 됐다. 국가대표 라이트백 류은희, 레프트백 심해인을 영입해 전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공격적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팀 중 유일하게 스위스~독일을 거치는 유럽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다수 감독이 부산시설공단을 우승후보로 꼽았다. 부산시설공단은 디펜딩 챔피언 서울시청, 준우승팀 삼척시청과 함께 3강으로 거론됐다.

임오경 서울시청 감독은 "(류은희와 심해인)최고의 베테랑들이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우승을 노릴 만한 선수들을 영입했다"며 "단독 우승후보로 부산시설공단을 꼽겠다"고 했다.

이계정 삼척시청 감독도 "우승후보는 부산시설공단이다. 지난해 우승한 서울시청은 조직력이 탄탄하니 그에 버금갈 것이다"며 두 팀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강재원 부산시설공단 감독은 "핸드볼은 팀 스포츠다. 별안간 선수들을 모았다고 해서 바로 상위권에 가는 건 어렵다"며 "차근차근 맞춰가겠다. 1라운드보다 2~3라운드에서 좋아질 것이다. 목표는 4강이다"고 겸손하게 응했다.

현역 시절 스타플레이어로 이름을 날렸던 강 감독과 임 감독의 신경전이 묘하게 이어졌다. 공교롭게 두 팀은 3일 개막전을 치른다.

뉴스



전라북도체육회는 1일 전라북도체육회관에서 2017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사업결과 및 임원변동사항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확정했다.

## “U-20 월드컵-세계태권도대회 성공 개최하자”

### 전북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1일 전라북도체육회관에서 2017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사업결과 및 임원변동사항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인 송하진 지사를 비롯하여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 56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제9회 전국동계체전 출전계획 등을 보고 받

았다. 또한 2016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결산, 임원변동사항 건에 대해 의결했다. 김성희 감사의 사외표명에 따른 보선감사는 전라북도축구협회 김대은 회장이 선출됐다.

감사는 추후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으로 임기는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이다.

이날 회의 의장을 맡은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는 FIFA U-20 월드컵과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라는 굵직한 국제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 전북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또한 송 지사는 “전라북도의 기상은 체육이 일인이다. 체육현장에서 전북체육발전에 앞장서 주신 대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박종덕기자

## KBL, 출범 20주년 기념 영상·레전드12공개

KBL이 프로농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KBL은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기념 영상과 KBL을 빛낸 12명의 선수,

구단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네이버 메인에는 KBL 출범 20주년 기념 특별 로고가 적용된다. KBL 20년 발자취와 추억의 선수들을 만날 수 있

다. 특히 허재, 조니 맥도웰, 문경은, 이상민, 전희철, 서장훈, 추승균, 현주엽, 주희정, 김주성, 애런 해인즈, 양동근 등 20년 동안 KBL을 빛낸 12명의 선수들의 경기 모습과 일러스트 이미지도 제공한다.

뉴스

## 동계체전 사전경기 ‘선전’

### 전북선수단, 17개 시도 중 5위

제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전북이 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를 획득, 종합득점 240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전북은 웰리힐리조트에서 진행된 스노보드 경기에서 김대현(남자일반부)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여자 일반부 김예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예앞서 지난달 28일 전북은 효자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고은정(여일·개

인·15km)과 전북체육회(계주단체)가 각각 은메달을 따내며 이어 남자 일반부 계주 무주군청, 혼성 계주 부문 전북선발 선수들이 박지애, 고은정(도체육회) 이수영, 김용규 (무주군청)이 은메달을 추가로 목에 걸었다.

또한 남자일반부 개인경기 20km와 스프린트 10km에서 무주군청 김용규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일원에서 제98회 동계체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북은 32명이 참가해 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덕기자

## 레알 마드리드가 눈독 들이는 16세 유망주 ‘슛돌이’이강인

### 발렌시아 유소년팀서 실력키워

세계 축구계를 이끄는 클럽 중 한 팀이 한국인 16세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 후자는 같은 리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이강인이다.

발렌시아 지역지인 수페르 데포르테는 1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가 발렌시아측에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빅토르 페르난데스 디렉터가 호세 라몬 알렉산코 발렌시아 유소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강인을 데려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것이 이매체의 설명이다.

발렌시아는 일단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이강인이 아직 프로 계약을 맺지 않아 레알 마드리드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인은 2007년 KBSN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2010년 GS칼텍스의 TV CF에 박지성과 함께 출연, 꿈을 성공한 뒤 감독 박지성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이도 이강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축구를 좀 잘하는 아이로 통하던 이강인은 10년 사이 세계 유수의 클럽들이 군침을 흘리는 유망주로 성장했다.

인천 축구클럽인 플라잉스에서 꿈을 키워가던 이강인은 2011년 1월 발렌시아의 시아에 포착됐다.

다비드 실바(맨체스터 시티)를 발굴한 발렌시아의 스카우트팀은 작은 체구에도 수준급의 기술과 넓은 시야를 겸비한 이강인의 재능을 확인한 뒤 정식 계약을



맺었다. 스페인으로 넘어간 뒤에는 현란한 기술로 금세 관계자들을 사로잡았다. 제1회 토렌트 국제 축구대회와 제4회 마요르카 국제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조급씩 이름을 알렸다.

주로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이강인은 드리블 돌파와 동료들을 활용하는 플레이에 모두 능하다는 평가다.

특히 왼발 능력이 무척 뛰어나다.

2013년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유소년팀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왼발 프리킥을 성공하자 경기를 지켜보던 스페인 대표팀 공격수 로베르토 솔다도가 트위터에 “지금 뛰고 있는 발렌시아 10번(이강인)이 누구지? 최고다!”라고 적은 사실은 국내팬들에게도 알려진 일화다.

최근에는 발렌시아 유소년팀 올해의 유소년 골의 주인공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역시 왼발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뉴스

# 현대장례식장

정성을 다해 내 가족처럼 사랑과 봉사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 유공자, 농협조합원 특별우대

문의 ☎275-4444

위치: 호성동 굴다리 → 중간(호성중학교 앞) ← 초포다리

▲2층 옥상 - 상주, 조문객 센터